

PEOPLE

2025년 5월 23일 금요일

조선대병원

제3차 정신건강 입원영역 1등급

조선대학교병원 (병원장 김진호·사진)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제3차 정신건강 입원영역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심평원은 정신질환으로 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정신건강 서비스의 표준화와 의료 질 향상을 위해 2019년부터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주요 평가 내용은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의 입원 진료분을 대상으로 입·퇴원 시 기능평가 시행률, 입원 중 정신 증상 또는 이상반응 평가 시행률, 퇴원 후 30일 이내 외래 또는 낮 병동 방문율 등 총 12개의 지표를 통해 결과를 산출했다.

조선대병원은 종합점수 93.0점으로 전체평균인 66.5점을 크게 웃도는 점수를 획득하면서 정신건강 의료서비스의 우수성을 인증 받았다.

이산화 기자 goback@gwangnam.co.kr



광주농업기술센터

우리밀 품종비교 현장 평가

광주농업기술센터는 22일 센터 내 스마트농업교육장과 노지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에서 ‘국내 육성 우리밀 품종비교 현장 평가회’를 개최했다.

이번 평가회는 우리밀의 품질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실증 평가 결과를 공유하고, 스마트농업 기술 도입 사례와 현장 활용 가능성을 농업인과 함께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평가회는 우리밀 재배 농업인과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여했다.

평가회는 방주석 농촌지도사의 ‘노지 스마트농업 기술 현황 및 현장실증 추진상황’ 발표에 이어 강진식 농업연구관의 ‘국산밀 안정생산 재배기술 및 병해충 관리 요령교육’이 진행됐다. 우리밀 6개 품종의 생육 특성 및 수량성 비교, 현장 품종 비교 평가, 참가자 종합토론 등이 이어졌다.

김시라 광주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기후변화 대응과 식량안보 확보 차원에서 우리밀의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이 중요하다”며 “농업현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기술과 품종을 지속 발굴해 보급하겠다”고 말했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광주환경공단

광주천 수목 해충 방제작업 추진

광주환경공단(이사장 김병수)은 광주천 일대 수목 해충 발생을 막기 위해 각 자치구청과 협력하여 친환경 방제작업을 이달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번 작업은 광주천 양동복개상가에서 서방천 합류 지점까지 구간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미국흰불나방 등 해충에 의한 수목 피해를 줄이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방제에는 생태계에 영향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약제가 사용된다.

공단은 기존 상순으로 해충 개체 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5월부터 방제를 시행 중이며, 해충 발생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가을철까지 2~3차례 추가 방제를 계획하고 있다.

김병수 이사장은 “광주천은 많은 시민이 여가를 즐기는 공간인 만큼, 해충으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양동민 기자

“투표=권리”...이주여성, 한표로 평등사회 꿈꾼다

광주시, 참정권 보장 캠페인...지역사회 일원·정치 주체

강기정 시장, 이주여성과 투표 의미·다문화정책 등 대화

오는 6월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광주에 거주하는 3900여명의 이주여성들이 투표를 통한 평등사회를 꿈꾼다.

광주시는 22일 광산구가족센터(송정다누리센터)에서 ‘광주 이주여성, 투표 참여로 소중한 권리 찾기’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투표가 힘입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이주여성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이자 정치의 주체로서 당당히 나서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특히 여성 참정권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이주여성 유권자들의 정치적 존재감을 지역사회에 알리는 데 중점을 뒀다.

캠페인에는 강기정 광주시장, 박병규 광산구청장, 이주여성 50여명, 노효경 북구가족센터장, 장은미 광산구가족센터장, 윤혜경 서구가족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강기정 시장은 이날 행사에서 투표의 의미와 민주주의 가치, 유권자 역할, 다문화정책 등에 대해 이주여성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투표 경험이 있는 이주여성 고목골 씨(중국 출신)와 이미선 씨(몽골 출신) 등이 처음 선거에 참여하거나 투표 과정이 낯선 이주여성들을 위해 투표 참여 방법을 안내하고 질의응답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베트남 출신으로 한국 이주 14년 만에 투표권을 얻어 생애 첫 투표에 나서는 A씨는 “당당하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작은 목소리를 낼 수 있음에 너무 행복하다. 제 아이들이 다문화가정의 자녀라는 인식보다 대한민국 국민 자녀로서 앞으로 당당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대선 투표를 꼭 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출신으로 자녀 둘을 키우고 있는 B씨는



“중국에서도 투표를 해본 적 없는데 태어나서 하는 첫 투표가 6월3일 대통령선거라 매우 설렌다. 중국 친정 식구들에게도 자랑하겠다”며 “출통한 대통령을 뽑아서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강기정 시장은 “투표는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힘이다”며 “투표를 통해 다문화정책 등에 대해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우리가 꿈꾸는 포용도시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다. 불가능의 꿈이지만, 무엇보다 값질 광주 투표를 92.5%를 향해 함께 손 맞잡아 달라”고 밝혔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광주자립지원전담기관, 자립준비청년 30명에 선물 전달

성년의날 기념...“강인한 의지 갖길”

광주자립지원전담기관은 최근 성년의 날을 맞아 올해 성년이 된 2006년생 자립준비청년 30명에게 선물을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전달은 광주자립지원전담기관과 대한적십자사, 자치구 아동보호전담요원과 함께 법적으로 성인이 된 청년을 직접 만나 축하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선물은 꽃다발, 향수, 머그컵, 문화상품권, 텀블러 등으로 구성됐다.

황인숙 관장은 “평생 단 하루인 성년의 날이 선물 같은 날로 기억되길 바라며, 자립 여정의 작은 추억이지만 긍정적인 에너지가 되길 바란다”며 “설렘과 기대뿐만 아니라 어려움과 좌절도 있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강인함과 굳건한 의지를 갖길



지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자립지원전담기관은 자립준비청년이 건강한 사회 일원으로서 자립성과 책임감을 느끼도록 격려하고 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나주시-국립나주숲체원-동신대, 치매 극복 명랑운동회

나주시가 지역 어르신의 치매 예방을 위한 숲속 운동회를 개최하며 건강한 노후를 응원했다.

시는 최근 국립나주숲체원 대강당에서 ‘2025년 숲속치매안심학교 명랑운동회’가 진행됐다고 22일 밝혔다.

명랑운동회는 치매안심학교 학생과 더불어 율령대 나주시장, 김민희 동신대 산림조경학과·김희동 작업치료학과 교수, 치매 환자 가족, 자원봉사자 등 200여명이 참여했다.

1부는 치매환자반 학생과 가족이 참여하는 팬플룻, 가요장구, 실버라인댄스 등 축하공연으로 진행해 운동회 분위기를 흥겹게 달궜다.

2부에선 치매예방·경도인지장애반 학생들의 공연 관람과 OX퀴즈, 오자미 컬링, 큰 링 던지기를 비롯한 신체활동과 소통과 화합을 다지는 단체 게임이 다채롭게 진행되며 심신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치매안심학교는 치매 환자의 사회적 고립 방지



와 치매 예방 및 증상 완화를 위한 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특화 사업으로 지난 2월 국립나주숲체원, 동신대학교 산림조경학과·작업치료학과와의 업무협약을 계기로 3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참가자 110명을 대상으로 치매예방반, 경도인지장애반, 치매환자반으로 나눠 주 1회 숲체원에서 치매 극복을 위한 치유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윤병태 시장은 “시는 치매에 취약한 어르신의 치매 예방과 증증화 억제 등을 통해 어르신이 나고 자란 곳에서 거주하며 치매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조현천 기자



광주 구청장협의회는 22일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돕기 위한 물품을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전달한다. 왼쪽부터 김이규 서구청장, 문인 북구청장, 임택 동구청장, 김병내 남구청장, 박병규 광산구청장.

광주 구청장協, 금타 화재 이재민에 구호품 전달

방진마스크 4000매·피로회복제 등 5000만원 상당

광주 구청장협의회는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돕기 위한 구호물품을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전달한다고 22일 밝혔다.

구호물품 전달은 지난 17일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구호물품은 방진마스크 4000매, 피로회복제

100박스 등 총 5000만원 상당으로 구성됐다.

임택 구청장협의회장은 “갑작스러운 화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산구 주민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민의 안전과 회복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 구청장협의회는 지난 3월 경남·북, 울산 등에 발생한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1000만원을 지원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광주여대 학생상담센터, 3차 마음약국 운영

광주여자대학교(총장 이선재)는 지난 21일 2025년 1학기 찾아가는 상담소 마음약국(3차)을 운영했다고 22일 밝혔다.

찾아가는 상담소 마음약국(3차)은 광주여대 재학생을 대상으로 비즈 팔찌와 목걸이 만들기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목적으로 진행됐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재학생들은 “내가 원하는 파츠를 연결해 비즈 팔찌를 만들어서 마음에 들었다. 자리에 앉아서 목걸이를 만드니 마음이 차분해졌다. 진행하는 선생님들이 친절하게 알려주셔서 쉽게 따라 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joinus@gwangnam.co.kr



광주대-목포해양대 학생상담센터 연구·발전 업무협약. 광주대학교 대학생활·진로상담센터(센터장 김용화)는 최근 국립목포해양대학교 학생상담센터(센터장 류영현)와 학생상담의 연구·발전을 위한 상호협력력을 약속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제공=광주대



광주지방보훈청장, ‘늘봄학교’ 일일교사 참여. 광복 80주년을 맞아 김석기 광주지방보훈청장은 최근 광주 광산구에 위치한 하남중앙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의 일일교사로 나서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에게 나라사랑 수업을 진행했다. 사진제공=광주지방보훈청